

article

a journal of contemporary art
february 2014 issue #31
contains 20% art portrait; 25% art passage; 30% feature



NOT YET, BUT NECESSARY

What should be translated for us?



전시 전경



사진위주 갤러리 류가현 '사진책도서관' 내부



강정석. 야간행. HD, 16:9, 스테레오. 44'38". 2013
이미지 강정석 제공

착용하는 현대미술

피카소에서 제프 쿤스까지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 2013. 12. 12-2. 23

현대미술사의 거장들이 만든 아티스트 장신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피카소에서 제프 쿤스까지>전. 이러한 주얼리 작품 리스트에는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페르낭 레제, 만 레이, 실바도르 달리, 알렉산더 칼더, 앤디 워홀, 아니쉬 카푸어, 루이즈 부르주아, 데미언 허스트, 제프 쿤스와 같은 현대미술사의 주요 작가들과 론 아라드 같은 디자이너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시장에 진열된 총 200여 점의 장식품들은 '착용하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동시에 현대미술가들이 활동한 시기들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추상, 팝아트, 미니멀리즘 등에 대한 미술사적 지식도 부분적으로 쌓을 수 있다. 특히 작가들이 작품의 조형성을 실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신구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피카소의 금으로 제작된 펜던트에는 신화적 상상과 상징이 담겨 있고, 만 레이의 황금 마스크는 초현실적인 오브제로서 작동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 특유의 만화 마점과 팝아트의 삼원색이 돋보이는 브로치, 로버트 인디애나의 'LOVE'가 전면에서 드러난 금반지,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방>이 그대로 드러난 은 목걸이 <메탈 바>, 제프 쿤스의 <토끼>가 앙증맞게 달린 백금 펜던트 등은 예술가들의 세계관을 엿보게 하며, 한편으로 20세기 중반 예술가가 만든 주얼리를 매개로 다른 영역의 예술 분야, 즉 패션, 공예 등과 콜라보레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음을 설명한다. 이 외에도 예술가가 장신구를 만들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예술가의 개인사 등을 알 수 있는 섹션도 마련되었다.

류가현, 국내 첫 '사진책 전문 도서관' 개관

사진위주 갤러리 류가현
사진책도서관 / 1. 20

지난 1월 20일 사진위주 갤러리 류가현에 사진책도서관이 개관했다. 기존 사무공간으로 쓰던 한옥의 작은 채 공간을 사진책 전문 도서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진가의 사진책을 한자리에 모아 나누어보자는" 의의를 가지고 문을 연 이 곳에서는 한국 사진가들의 사진집을 포함해 눈빛, 열화당, 사진예술과 같은 출판사에 발행된 사진책과 사진 관련 저서 등 약 1천여 권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문헌 목록에는 절판되어 이제는 구하기 어려운 사진가 안승일의 '너와집', 80년대 초 출간되었다 최근 소량 복간된 '한국의 고건축', 희귀본뿐만 아니라 서점에 유통되지 않은 사진가들의 카탈로그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진책도서관 개관에 관해 류가현 박미경 대표는 "올해로 류가현이 개관 4주년을 맞았다. 실질적인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더 깊고 넓어질 수 없을까를 고민했고, 그 결과 새롭게 문을 열게 된 것이 사진책도서관이다. 그동안 안채로 불리던 공간이 더 많은 이들의 사랑채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변 사진 관련 인사들의 응원도 이어졌다. 눈빛 출판사 이규상 대표는 "우리나라 사진역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사진책 전문 도서관이다."며 25년 동안 출판해 온 사진책 대부분을 기증했고, 다른 출판사들을 비롯해 황규태, 주명덕, 김옥선, 노순택 등 사진가들과 작고한 김수남 작가의 부인 이희영 여사가 책을 선톤 내놨다. 특히 성남훈 사진가는 자신의 대표 사진집 '유민의 땅'에 게재된 사진 일부를 판매해 도서관 준비 기금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작가로서 살아가기

미래가 끝났을 때
하이트컬렉션 / 2. 7-5. 10

하이트컬렉션의 2014년 첫 전시 <미래가 끝났을 때>는 나이와 경력이 아닌 '다음 세대'라는 관점에서 젊은 작가들을 조명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선배 작가라 할 수 있는 김홍석, 박찬경, 안규철, 오인환, 정서영, 정연두의 추천으로 선정된 총 11명(팀)이다. 그들은 강정석, 김다움, 김동규, 김실비, 로와정, 서보경, 이병수, 이양정아, 정승일, 최윤, 함정식이다. 이들은 최근 젊은 세대를 규정한 신조어들, 즉 88만 원 세대, 삼포족, 이태백 등과, 그들을 쉽게 단정 짓는 사회의 일방적인 시선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구성 때문인지,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의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의 제1장 제목을 전시명으로 인용한 <미래가 끝났을 때>는 삶에 대한 불안정성을 깨닫고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오늘날의 삶을 반영하려 한다. 예를 들어 강정석은 기성세대들이 기준지는 잣대를(<야간행>, <고무인간의 겹질>), 김실비는 오늘날 예술가로서의 자기 인식과 실천방식에 대한 고민을 담고(<M을 위한 노래>), 로와정은 기성 미술계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을 유언함과 유머로 환기시킨다.(<두 개의 시간>, <시그니처>) 한편, 이러한 전시와 함께 젊은 작가들에 대한 선배 작가들의 글과 인터뷰가 수록된 도록이 출판될 예정이고, 4월 25일과 26일에는 전시와 연계된 상영회와 아티스트 토크가아트선재센터 1층에서 개최된다.